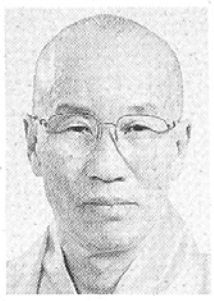
"전법도생 매진하는 종풍 정착"

선교종 새 종정 동 호 스님



"작금의 온갖 사회병폐와 중생들이 겪는 고통은 더불어 살아갈 줄 모르는 마음, 즉 자기만 알고 타인은 알바가 없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1월 9일 대한불교 선교종 제2세 종정으로 취임하는 동호스님이 현 세태를 보는 일갈이다.

스님은 이같은 허상에 얽매인 무명의 상태가 연기작용에 의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회병폐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한다.

"40여년을 간단없이 교화하신 불타의 근본 가르침은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것입니다. 이의 실천궁행으로 불향이 저푸른 창공에서 내려오는 한점의 맑은 바람같이 심산유곡에서 흐르는 한줄기 옹달샘처럼 끊임없이 가득찬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창종 3주년을 맞이하는 선교종은 향후 보우국사의 원융종풍을 선양하여 전법도생에 매진하는 개혁종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품은 공덕의 어머니' 체험

부산시내서 탁발수행

송광사 강주 지운 스님



"탁발은 무소유와 하심을 실천하는 하나의 수행방법입니다. 납자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되지 않은 학인승들에게 이번 탁발이 발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6일 부산 번화가 일대에서 탁발을 시작한 지운스님(송광사 강원 강주)은 탁발을 깨침의 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스님은 또 불자에게 있어서 세상의 크고 작은 공덕은 모두 베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의 실천이 바로 탁발이라고 말했다.

송광사 강원은 작년부터 1년에 네차례 탁발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광주(두번), 진주에 이어 부산이 마지막 일정으로 50여명의 학인들이 참여해 그 인원도 가장 많았다. 진주서는 탁발 보시금 4백만원 전액을 심장병 어린이 수술 비용으로 기탁하기도 했다는 지운스님은 이번 탁발에서 모인 보시금은 중국 연변 도문시 화엄사 복원에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병〉

교차로

비구·비구니계 수계식



덕암스님(전 태고종 종정)은 11월5일~7일까지 2박3일간 불이성 법륜사에서 비구·비구니계 수계식을 봉행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31일까지.(02)732-3920

광주 '나눔의 집' 방문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 광주에 건설중인 정신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둥지소년의집 개원식에도 참석했다.

미주 불교 창간기념 행사 참석



법성스님(대승원 원장)은 미주 현대불교신문 창간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키 위해 지난 16일 도미, 현지서 '현대사회와 불교'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석용산스님 초청 법회



도업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석용산스님을 초청 '열린 마음 열린 세상'을 주제로 10월 정기법회를 갖는다.

미8군법우회 창립 15돌 행사

박동윤씨(미8군법우회 회장)는 오는 22일 미8군 교회강당서 '미8군 법우회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와 효…' 주제 법회



명호근회장(대불련총동문회)은 오는 23일 오후 7시 조계사 1층 불교회관에서 월주스님과 오형근 박사(총동문회 학술원장)를 초청, '불교와 효의 재조명'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암자순례' 중앙일보 연재



정찬주씨(소설가)가 산중암자의 역사와 그곳에서 주석했던 큰스님들의 이야기등을 주제로 하는 '암자순례'를 10월 말부터 매주 1회씩 중앙일보에 연재한다.

하이텔 '불동' 회장 피선

오상룡교수(상주 산업대)는 지난 1일 하이텔 불교동호회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오회장은 소모임활성화, 강원·제주지역모임 결성, 스님공동아이디 운영등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성남불교인 산악회 창립



임선교법사(성남불교신도회장)는 오는 21일 오후 5시 성남 신흥동소재 수정부페에서 성남불교인산악회 발단식을 갖는다.

청소년가장 돕기 모임



정영자씨(지혜의 등불 봉사신행회 회장)는 오는 28일 오후5시 여의도 63빌딩 별관3층 코스모스홀에서 '95 무의탁노인·청소년가장어린이돕기 지혜의 등불 가족모임 만찬을 연다.

원효학 연구원 초대원장 김 영 태 교수

"대승적 융회·무애사상 다시 선양"



"원효학의 산지(産地)이자 근본도량인 경주 분황사에 연구원을 개원하는 것은 원효스님이 저술하고 수행한 성지에서 그 뜻을 이어받아 원효학을 부활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새벽을 밝힌 원효스님의 사상을 학문적으로 승화시킬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타)의 초대원장을 맡은 김영태교수(동국대·63)는 "원효스님의 화쟁(和諍)·회통적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성사의 위대한 생애와 정신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분황사(주지 종수)에서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하는 연구원은 원효스님의 교학 및 사상의 발굴·재정비, 원효저술의 번역 주해 및 연구, 연구발표회 개최 및 연구논집등 발간, 원효관련 유적지 조사 및 성역화 등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김교수는 "원효스님은 한국불교와 우리민족이 낳은 불멸의 스승이며 위대한 종교인이자 독창적인 사상가로서 대승보살도의 탁월한 실천가였다"며 원효스님의 보살행을 되살리는 원효대재 봉행, 원효문예대전 개최 등의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분황사 황룡사지와 경주시내 일원에서 봉행될 '해동초조 원효성사 제향대재'는 경주시 차원의 문화축제로 준비된다. 또 원효문예대전에는 무애가무 거리굿 시가행렬 등의 앞길놀이와 국악관현악단의 열린마당 북춤 관소리 연등탑돌이 등 뒷마당으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

김교수는 "원효대사가 완성한 융회(融會)·무애의 정신을 이 시대에 상응하는 문화형식으로 재구성해 선양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정착시키는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김재경 기자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동대 불교사회복지회



◇대창양로원 거주 사할린 교포 노인을 위한 위문공연을 펼치고 있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회.

'시름의 세월' 달래는 화합 한마당

귀국 사할린 동포에 성금·의류 등 전달 위로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서 잔치를 베풀어주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사할린동포 영구귀국노인 51명이 거주하는 대창양로원(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산12-11, 원장 오기문)에서는 위문공연이 베풀어졌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회와 한국전통가요 동호인회등 4개 단체가 합동으로 위문공연을 마련한 것.

공연에 앞서 4개 단체가 정성껏 준비한 성금과 의류 및 의약품등이 전달됐다. 이는 연중 최고온도가 섭씨 27도 정도밖에 안되는 사할린에서 온 동포노인들이 공동적으로 피부병과 환절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인사말에서 운월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회장)은 "내생에는 우리나라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인연갖기를 기원드립니다"고 말하며 사할린 교포 노인들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공연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분 두분 무대앞에 나와서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서 눈치만 보던 노인들이 한울타리 봉사회원들이 이끄는 손길을 따라 너나없이 무대앞으로 나왔다.

열기가 한층 고조되자 구경만 하던 둥네아저씨, 아주머니들도 덩달아 어깨춤, 엉덩이춤 대열에 가세했다.

사회자의 권유로 스님들도 국적불명의 승무(?)를 추었으며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영글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고국을 떠나올 때 한번, 사할린을 떠나올 때 한번 등 모두 두번의 크나큰 별리를 겪은 이들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잠시나마 맺힌 한과 슬픔을 달랠 수 있었다.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3년 징병으로 끌려간 남편을 좇아 사할린에 건너갔다는 김순덕할머니(73)는 "남편과 사별한 후 죽지못해 살아왔다"며 "그나마 늙으막에 고국에 돌아온 것은 모두 부처님 덕분"이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이날 공연은 불교도 소극적 행동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실현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앞장서 나가야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대창양로원 가족들은 운월스님 초청으로 지난 2일 KBS 가요무대 공연을 관람하고 63빌딩도 둘러보았다.

고령=이윤호 기자



불지사 '선학사전' 출판기념회

〈선학사전〉(불지사 펴냄) 출판기념회가 지난 6일 쌍용빌딩에서 월운 동국역경원장, 보광 동국대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장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장, 김종서 한국교육개발원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권기종 연기영 박경준 동국대교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선학사전은 선불교와 관련된 9천1백여 항목의 표제어를 수록, 풀이한 한국 최초의 선종 관련 사전으로 월운스님이 감수했다.



무주 안국사 이전복원 불사 회향

무주 적상산 안국사(주지 원행) 이전복원 회향식 및 만등불사가 지난 6일 성황리에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송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정락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천운스님(대둔사 주지)등 스님 50여명과 김세웅무주군수 신도 1만여명이 동참했다.

7년여에 걸친 이전불사를 회향한 안국사는 극락전 천불전 요사채등 10여동의 전각을 복원했다.



제주 문강사 불교회관 낙성식

천태종 제주 문강사(주지 전문구)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제주시 삼양동 산1-2 원당봉에서 불교회관 낙성식을 성황리에 봉행했다.

이날 낙성식에는 김도용증정을 비롯 전운덕 총무원장, 윤덕산 종회의장, 주정산 감사원장, 박형철 참의원장, 김지문 제주불교사암연 회장, 신구범 제주지사, 고민수 제주시장, 김인규 제주도의회의장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법왕사 경로잔치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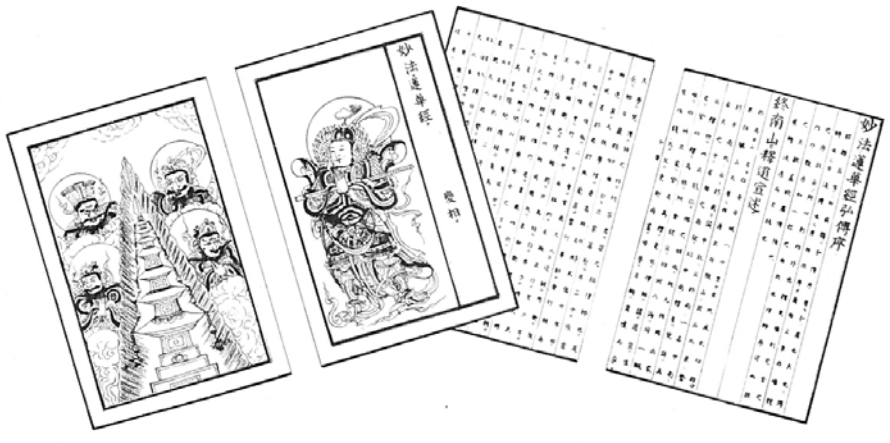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스님)는 지난 7일 대구시내소재 양로원·경로당 및 사할린 영구귀국동포가 거주하는 고령군 대창양로원 노인 1천5백여명을 초청 '제4회 경로잔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대구 예총연주단과 공연단의 음성 및 춤공양, 범진스님의 회심곡, 대연스님의 법화경 음성공양 등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즉석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석 노인들을 즐겁게 했다.

원효스님의 종요·
김시습의 별찬이
수록된 법화경
한장본

묘법연화경

현재 발간된
영인본과는 달리
각 품마다 대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이미 발간되었던 법화경과는
다른 도광 10년, 170년전 필사본으로
귀중한 사료로 남을 것입니다.

첫째, 원효대사의 법화경 종요 序수록
둘째, 淸寒子 김시습의 법화경 별찬·별찬서 수록

■ 내용. 최고급한지 인쇄. 수제본
■ 표지·케이스는 최고급 한지배접 제작
■ 전7권 최고급 한지 케이스 입
■ 한정판 출간 예정

값 200,000원
※ 선 주문시 15% 할인해 드립니다.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수성B/D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